

문화광장



장수명
동화작가

라임엘로우.
노랑은 봄을 상징하고 희망과 긍정을 상징하는 색이다.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호수 가에 핀 금잔은대라 불리는 수선화를 보며 시를 지어 찬양했다. 봄을 알려주는 노란나팔. 뜬금없이 노란색이야기를 한다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매일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에 걸쳐 라임엘로우색을 입은 일본 관계자가 나와서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에 관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마스크 안에 갇힌 세상

지난 2월 17일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를 지켜보던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자국 입국금지국으로 지정했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서둘러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는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나라를 빠져나갔다. 투명한 것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만천하에 우리나라 현황을 이대로 드러내도 되는 것인가 싶었다. 하지만 정부는 투명한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 나갔다. 라임엘로우색을 입은 정부 관료와 공무원들이 앞 다퉈 코로나19 대응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갔다. 그 가운데 매일 두 차례에 걸친 브리핑 자리에 서서 많은 국내외 기자들 앞에서 상황설명을 하는 질병관리본부 대책본부 본부장(정은경)을 보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조마조마했다. 갈라지고 바

짝 마른 입술에 어두워지는 낮빛은 너무 고단하다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었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러다 저분 쓰러지면 ‘어떡하지?’ 했다. 하지만 본부장은 의연했고, 침착했으며 끝까지 소임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빠른 검사와 대처로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benchmarking)하고 있다고 한다. 그제, 정부에서 15일간(3월 22일~4월 5일까지)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 두기’ 국민행동지침을 발표했다. 지키기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얼마 전만해도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여론이 들끓어 버렸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애국은 스스로 자기를 단속하는 일이다. 게다가 제주도

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없는 청정지역이다.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한다. 바로 나 자신과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이 발표 된지도 벌써, 이들이 지났다.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고 스스로 자기 몸 상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가로 20cm, 세로 14cm 남짓한 불편하지만 서로를 위한 약속으로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하자. 온종일 마스크 착용을 해야하는 의료진과 방역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말이다. 그 작은 마스크 안에서 우리는 또 다시 진화한 대한민국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할 때이다. 필요로 재외국민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받아주는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 할 때이니 말이다.

사설

4·15총선 스타트, 깜깜이 선거 우려된다

국민의 심부름꾼을 골라내기 위한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다음달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불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4·15총선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선발전 여·야의 대표선수들이 총성 없는 전쟁에 뛰어들어 치열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뤄집니다. 후보등록 후 4월 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여야 후보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14일 자정까지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유권자 투표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재외투표를 시작으로 차례로 진행됩니다.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선상투표, 10~11일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

가 이뤄집니다. 이번 총선은 연령을 낮춘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투표가 가능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하거나 자택격리 중인 유권자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를 신고하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을 제대로 뽑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각 후보들이 유권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더욱 우려됩니다. 특히 범국민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이 펼쳐지면서 선거운동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면 선거운동이 힘들어지면서 각 후보의 공약과 비전을 알리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4·15 총선은 말 그대로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유권자의 관심과 함께 투표참여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 13일동안 새 전기를

정부가 내달초 개학전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중단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답화문’에서 다음달 6일 각급 학교 개학일까지를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로 판단, 보름동안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한 겁니다. 개학전에 지역사회 차단을 위해 다수가 모이는 행사·집회 지제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중단 권고를 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 시설운영 준수사항을 안 지키면 행정명령, 시설폐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개학일이 이미 세 차례나 연기된 상황에서 더 이상 연기는 안되고, 학생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학 추진도 어렵다는 진퇴양난속에서 개학전에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으려는 것입니다. 제주도로도 후속조치로 고위험 집

중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지원반’ 운영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내 소규모 교회들이 주일에배를 그대로 진행하는 사례가 나오는가 하면 일부 실내체육시설·학원 등의 경우 문을 연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윤나라가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예배중단과 개강 연기 등에 나서고 다른 한편에선 반대로 움직인다면 집단감염 예방의 효과는 당연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는 산발적 감염이 계속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민들도 오늘(24일)부터 13일동안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중단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사태의 새 전기는 도민 동참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열린마당

청렴, 작은 것이 모든 것의 시작



윤예희
서귀포시 청산읍사무소

1년 전 공무원 시험 면접 당시에 면접관이 “공무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청렴’을 1순위로 꼽았다. 공직자 이전의 나도, 공직자가 된 지금의 나도, 그리고 나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 물어도 모두가 청렴과 공직자를 같이 떠올릴 것이다. 청렴의 대상으로 모두가 공직자를 떠올린다는 것, 유독 국민들의 엄격한 잣대가 작용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큰 부담일 수 있겠다. 그러나 이토록 청렴이 강조된다는 것 또한 공익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이라는 공직자의 존재이유에서 비롯됐을 것이기에 청렴은 공직자들의 자연

스러운 숙명이 되지 않을까 싶다. 청렴의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일핏 보면 막연하고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단순하게 생각해보니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것으로 어떤 일이든 선뜻 먼저 나설 수 있는 솔선수범의 태도에서부터 시민의 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모습, 규정대로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까지 이 작은 것들이 모두 청렴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또 단순히 재물을 탐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나라의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국민에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이 맡은 업무가 아무리 단순해보일지라도 이로 인해 주민 개개인뿐만 아니라 마을이라는 한 공동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 또한 청렴의 모습일 것이다. 공직자를 꿈꾸며 청렴을 얘기했던 그때의 포부가 퇴색되지 않게 조심할 것을 잃지 않고 오늘도 작은 것 하나를 나 먼저 실천할 것을 다짐해본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시 클린존 인증신청 ‘보여주기’식

선거 뒷날 비례대표 결과

○…4·15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 개표작업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면서 4월 16일 오후가 돼야 비례대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 23일 제주도선거위에 따르면 지난 선거에서는 21개 정당이 등록돼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개표작업을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47개 정당이 등록하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늘어나 수작업으로만 개표가 가능.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투표 용지 길이가 최대 54.1cm”라며 “지역구 개표는 자동분류기로 가능하지만 정당투표는 수작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대모기자

“오해 우려 세심하게”
○…제주시가 청정제주 클린존 인증 신청 대상 범위 확대방침과 관련 일부에선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 시는 당초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시설 중 방역완료 업체를 대상으로 클린존 지원을 했으나 확진

자 방문여부와 상관없이 방역을 완료했을 경우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 이에 주변에선 “클린존 인증을 하지않을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 등을 불러와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세심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 이윤형기자

“안전한 통학로 실현 노력”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안전한 통학로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당부. 이석문 교육감은 23일 도교육청 중간기획조정회의에서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안전 등하굣길 조성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 이어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이뤄져야 법의 의미가 실현된다”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각별한 노력과 협력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지은기자

부 고

오승훈(신도리코 중앙사무기 부장) 어머니
제주고씨 영순(향년 76세)께서 서기 2020년 3월 22일 23시 0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 2020년 3월 24일(화요일)
▶ 발인일시 : 2020년 3월 25일(수요일) 오전 6시
▶ 발인장소 :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분향실
▶ 장 지 : 서귀포시 상례동 가족묘지(군산 선영)

아 들 오 승 훈 며느리 현 순 녀
동 훈 고 수 연
딸 오 현 숙 사 위 강 석 진
향 선 양 관 식
손 자 오 권 을 외손자 강 봉 균
손 녀 오 민 서 봉 오
시 진 봉 기
양 혁 주
외손녀 양 유 진

※ 연락처 : 오승훈 010-4109-1233
오동훈 010-3697-9885
오현숙 010-3252-3511
현순녀 010-2781-2614
고수연 010-3692-6762
양관식 010-6695-9885

부 고

정승표 어머니 신현강씨 기출(향년 91세)께서 서기 2020년 3월 22일 18시 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 2020년 3월 24일(화요일)
▶ 발인일시 : 2020년 3월 25일(수요일) 오전 7시
▶ 발인장소 :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실
▶ 장 지 : 성산을 고성리 선영

아 들 정 승 표 며느리 이 복 숙
승 태(敎) 정 경 애
승 영 우 현 덕
딸 정 순 희(敎) 사 위 임 시 흥
복 희 김 석 용
숙 희 고 광 식

※ 연락처 : 정승표 010-6693-0150
이복숙 010-9793-1791

부 고

강태근(前 초동교장) 아버지 진주
강공 영범(향년 94세)께서 서기 2020년 3월 23일 13시 19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 2020년 3월 25일(수요일)
▶ 발인일시 : 2020년 3월 26일(목요일) 오전 7시
▶ 발인장소 : 한빛장례식장 1분향실
▶ 장 지 : 창천 공동묘지

아 들 강 태 근 며느리 이 명 연
태 종 김 영 아
태 조 이 명 선
딸 강 경 자 사 위 진 용 국
화 자 고 영 진
인 자 현 상 류
손 자 강 용 석
규 석
선 석
윤 석

※ 연락처 : 강태근 010-4692-2034
강태종 010-2696-9370
강태조 010-2699-8203
진용국 010-2223-5929
고영진 010-9838-3801
현상류 010-2689-5264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신천강공 부전(향년 7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3월 24일

부 인 현 영 자
아 들 강 의 용 며느리 김 명 희
의 식 송 임 숙
딸 강 경 아 사 위 장 익 한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골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출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